

『시경(詩經)』을 통해 살펴본 놀이문화 소고(小考)

박순철^{*} · 최윤금^{**}

-
- 一. 들어가는 말
 - 二. 『시경(詩經)』의 놀이문화와 종류
 - 1. 놀이의 개념
 - 2. 절일유희(節日遊戲)
 - 3. 엽채유희(獵采遊戲)
 - 4. 신방유희(新房遊戲)
 - 5. 연회유희(燕會遊戲)
 - 6. 무술점복(巫述占卜)
 - 7. 간화완물(看花玩物)
 - 8. 제사유희(祭祀遊戲)
 - 三. 맺는말
-

■ 국문요약

『시경(詩經)』에는 로제 카이와와 요한 하위징아가 중시하고 강조한 놀이문화가 많이 나온다. 놀이의 개념은 두 사람이 강조한 개념이지만 중국 고대에도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이미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일장일이(一張一弛)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一弛)이 오늘날 말하는 놀이와 관련이 있다. 인간이 놀이를 하는 것은 긴장을 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시경』의 내용을 놀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살핀 것이다. 『시

^{*} 제1저자: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unshan@hanmail.net

^{**} 연결저자: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 / gurasung1234@hanmail.net

경』의 「풍(風)」의 내용은 민간가요이고 「아(雅)」는 천자와 신하가 조정에서 행한 연회(宴會)이며 「송(頌)」은 후손이 선조를 위해 노래 부르고 춤추며 지낸 제사였다. 풍·아·송의 공통점은 노래이고 그 노래에는 놀이에 관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놀이의 종류는 1. 절일유희(節日遊戯), 2.렵채유희(獵采遊戯), 3. 신방유희(新房遊戯), 4. 연회유희(燕會遊戯), 5. 무술점복(巫述占卜), 6. 간화완물(看花玩物), 7. 제사유희(祭祀遊戯) 등이다. 이러한 놀이의 탄생과 형성은 크게 우주와 자연의 신화적 해석-무술기도(巫術祈禱)-종교화-의식-축제-놀이, 무술(巫術)-모방(模倣)-유희와 춤-가요, 생존과 생산 활동-모방-유희-시가의 과정을 걸친다. 따라서 시경은 주대의 시가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놀이의 형성 과정과 종류를 알 수 있는데 그 종류는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종류가 있다. 요약하면 『시경』의 「풍」에는 소박하고 자발적인 놀이와 축제의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고, 「아」에는 조정과 군신의 연찬을 통한 즐거움과 화친이 표현되어 있고, 「송」에는 제사의식을 통한 선조에 대한 송찬(頌讚)과 구복(求福)이 표현되어 있다.

주제어: 詩經, 遊戯, 놀이, 一張一弛, 節日祝祭, 愛情遊戯, 食飲酒樂, 占卜遊戯, 玩物

一. 들어가는 말

『시경(詩經)』은 중국 최초의 시가총집(詩歌總集)으로, 중국시가사는 물론 중국문학에서 원류적(源流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경』은 대략 서주 중엽에서 동주 초기까지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시를 채집한 것으로 총 305편이다. 그 내용은 인간이 읊을 수 있는 모든 정감이 표현되어 수록되어 있다. 이런 정감 중에는 사람이 놀면서 느낀 즐거운 감정을 표현한 시가 적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경』의 내용을 놀이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그 내

용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류는 생존하기 위하여 청동기 시대에는 수렵과 채취를 하고 철기시대에는 정착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이때 생존 활동과 함께 또는 분리하여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는 병행의 놀이를 하다가 점차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만들었다. 시경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진입한 시대였는데 일과 놀이가 병행 또는 분리되어 실행되었다. 이 때문에 『시경』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행했던 놀이와 축제 관련 내용이 적지 않다.

놀이의 관점에서 볼 때 『시경』의 「풍(風)」의 내용은 민간가요이고 「아(雅)」는 천자와 신하가 조정에서 행한 연회(宴會)와 간언(諫言)이며 「송(頌)」은 후손이 선조를 위해 춤추고 노래 부르며 제사를 지낸 내용이다. 풍·아·송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의 공통점은 놀이와 축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다만 노래를 부른 장소와 목적이 달랐을 뿐이다. 요한 하위징아는 놀이는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놀이하는 인간(호모루덴스)’이라는 명칭을 제안하였다. 『시경』을 통해서도 그가 말한 놀이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요한 하위징아는 또한 “놀이는 자발적 행위로 자유로운 행위이며 자유 그 자체인데 즐거움의 원천이다.”라고 하였다.¹⁾ 나아가 그는 “시는 놀이에서 생겼다.”라고 하였다.²⁾ 『시경』은 주나라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는 시이다. 요한 하위징아의 말처럼 『시경』 시의 탄생은 놀이와 관련이 있고 놀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경』 305편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놀이와

1) 요한 하위징아(2023),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42~48면 참조. 요한 하위징아는 이 밖에도 놀이의 특징을 “놀이의 특징이 규칙과 억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다.”, “진정한 놀이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놀이정신은 행복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였다.

2) 요한 하위징아(2023),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246면.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고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시경』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많지만 놀이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분류하여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마르셀 그라데는 『중국의 고대축제와 가요』에서 『시경』의 연애가를 중심으로 계절제 축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제의 정경을 설명하였다.³⁾ 최효미는 「시경 「국풍」에 투영된 사회상 연구」에서 유희시(遊戱詩)라는 항목으로 2편의 시를 언급하였을 뿐이다.⁴⁾ 본 논문에서는 마르셀 그라데의 책과 함께 협서한(叶舒憲)이 쓴 『시경적문화천석(詩經的文化闡釋)』을 참고하여 『시경』에 수록된 놀이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여가와 유락활동을 매우 중시하는 상황에서 시경시대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탄생한 놀이방식과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二. 『시경(詩經)』의 놀이문화와 종류

1. 놀이의 개념

놀이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일과 놀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다. 일은 생존을 위한 활동이고 놀이는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다. 놀이의 중요성과 개념은 근래에 중시되어 로제 카이와의 『놀이와 인간』, 요한 하위징아의 『호모루덴

3) 마르셀 그라데(2025),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살림출판사, 194~195면 참조.

4) 최효미(2012)는 석사학위 논문 101~103면에 걸쳐 유희시라는 제목 아래 사냥 관련 내용의 진풍(秦風) 「사철(騶騶)」과 제풍(齊風) 「노령(盧令)」을 언급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사냥하는 모습을 유희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그 내용이 너무 적고 본격적인 유희시에 관한 서술로는 너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스』에서 강조되어 설명되었다. 그는 놀이의 특징이 “놀이는 자유로운 행위이며 자유 그 자체이고, 실제의 생활에서 벗어난 행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다.”라고 하였는데,⁵⁾ 이는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로제 카이와는 놀이의 본질을 “자유로운 활동, 분리된 활동,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 비생산적인 활동, 규칙이 있는 활동, 허구적인 행동이다.”라고 하였다.⁶⁾

이러한 놀이에 대한 생각은 근래에만 있지 않았고 서양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동양에서도 이미 있었다. 놀이의 개념은 우선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예기(禮記)』 「잡기(雜記)」 하제21장에는 공자와 자공의 대화가 나온다. 공자가 사제(蜡祭: 세밑에 군신(群神)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를 구경하고 온 자공에게 즐거웠느냐고 물은 뒤 공자는 너는 사람들이 100일 동안 일하고 겨우 하루 동안 즐기는 사제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긴장시켰다가 늦춰 주었다 하는 것이 문왕과 무왕의 정치라고 하였다. 공자가 말한 한번 긴장시키고 늦춰 준다는 일장일이(一張一弛)에서 유희의 개념과 중요성을 추측할 수 있다. 일장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일이는 신나게 노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로렌 카이와가 “놀이에서는 허구와 기본전환의 역할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⁷⁾ 또한 놀이의 개념은 한자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완(玩), 악(樂)에서 그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 완은 둥근 구슬이다. 이는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완(玩)자의 의미에 대하여 요한 하위징아는 “완은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의미하는데 그 뜻을 넓히면 무엇인가를 즐긴다, 장

5) 요한 하위징아(2023),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42~48면 참조.

6) 로제 카이와(2004),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34면.

7) 로제 카이와(2004),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27면.

난치다, 깡충거리다, 익살 떨다, 농담하다, 흥내 내다, 손가락으로 만져 보는 행위이다.”라고 하였다.⁸⁾ 따라서 완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놀며 재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은 또한 악기를 연주하며 느낄 수 있다. 악(樂)의 다른 발음은 낙(樂)인데 이는 바로 악기를 연주하며 느끼는 즐거움에서 그 뜻이 유추되어 발음까지 낙으로 바뀐 것이다. 근래의 험서한(叶舒憲)은 『시경적문화천석(詩經的文化闡釋)』에서 시가의 탄생에 대하여 무술(巫術)-모방(模倣)-유희(遊戲)와 무도(舞蹈)-시가(詩歌)라는 모식(模式)을 제시하였는데⁹⁾ 이는 요한 하우징아가 말한 ‘시는 놀이에서 생겼다.’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동서양의 놀이 개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공통적인 개념은 일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는 일을 잠시 멈춰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느긋하게 먹고 구경하며 춤과 노래를 즐기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놀이 또는 유희라고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놀이와 유희를 추구하는 방법과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상의 일을 즐기거나 벗어나 긴장을 늦추고 여유롭게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선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노동요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처음에 일하며 부른 노동요가 이후에는 하나의 놀이로 불려 유행했다는 것이다. 『시경』에는 이러한 노동요(勞動謠)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는 일상을 벗어나 무엇인가를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활쏘기, 음주 및 점복(占卜) 같은 것이 있다. 이 중에서 활쏘기와 음주는 이후에 향사(鄉射)와 향음주(鄉飲酒)로 형식화되었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제사 및 축제에 참가하여 구경하고 즐기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즐길 거리를 만들어 놀거

8) 로제 카이와(2004),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87면.

9) 叶舒憲(1996), 『詩經的文化闡釋』, 湖北人民出版社, 9면 참조.

나 기존의 전통적인 유희를 즐기는 방법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시경』에 나타난 놀이의 특징은 크게 놀이 그 자체를 즐긴 경우(순수한 놀이)와 일과 행사를 겸한 놀이 형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순수한 놀이는 절일(節日)과 신방놀이 등이다. 일과 행사를 겸한 놀이 형태는 「풍」의 노동요와 「아」의 조정연회 및 「송」의 제사의식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절일유희(節日遊戲)

『시경』 「정풍(鄭風)」의 「진유(溱洧)」시에는 정(鄭)나라의 상사일 축제에 관한 내용이 읊어져 있다. 상사날은 음력 3월 3일이다. 정나라의 풍속에는 3월 상사일(上巳日)에 물가에서 택란(澤蘭)을 캐어 불상(不祥)을 제거하였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나와 이 절일 행사에 참가하였다. 특히 청춘 남녀들이 많이 나와 즐겼다. 시에는 여자와 남자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읊어져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溱與洧	진수와 유수는
方渙渙兮	바야흐로 넘실넘실하는데
士與女	남자와 여자들이
方秉蘭兮	바야흐로 난초를 가졌구나
女曰觀乎	여자가 말하기를 구경가자꾸나 라고 하여
士曰既且	남자가 말하기를 이미 했다고 하네
且往觀乎	여자가 말하기를 또 가서 구경가자꾸나
洧之外	유수 밖에는
洵訏且樂	참으로 크고 또 즐겁다고 하여
維士與女	남자와 여자가
伊其相謔	그 서로 해학하면서

贈之以勺藥 그에게 작약을 선물로 주네
〈溱洧, 제1장〉

본 시는 청춘남녀가 진수와 유수가에서 거행되는 상사일 축제에 참가하여 즐기는 과정을 읊은 시이다. 여자가 먼저 묻고 남자가 답하는 형식의 대화체 시로 서로 묻고 답하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 희롱하고 또 작약(勺藥)을 선물로 주며 즐기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시경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특별한 절일에 행사와 축제를 만들어 놀이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마르셀 그라네는 정나라에서 상사일의 축제가 도량현의 산기슭에서 열렸다고 설명하였다. 이곳은 아주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좁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나라의 남녀가 모이는 곳이다. 그들은 난초를 따고 교대로 노래를 부르며 경쟁하고 치마를 걷고 유수를 건너고 젊은 남녀는 서로 결합하면 새로운 연인이 되고 헤어질 때 사랑의 표시와 약혼의 징표로 서로 꽃을 주고받았다고 한다.¹⁰⁾

3. 엽채유희(獵采遊戲)

시경시대는 철기농경시대에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수렵과 나물 채취가 병행되었다. 이 때문에 사냥을 즐기고 나물을 채취하며 부른 노래가 지어져 불려졌다. 이러한 노래는 노동요(勞動謠)라고 할 수 있다.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에는 이와 관련된 노래가 적지 않다. 「소남」의 「추우(騶虞)」 시는 사냥에 대하여 읊은 시이다. 시에서는 “저 무성한 갈대밭에 한 번 화살을 쏘아 다섯 마리 수탉지를 잡았으니, 아, 추우로다. [彼茁者葭，壹發五豝，于嗟乎騶虞.]”라고 읊고 있다. 이 내용은 임금의

10) 마르셀 그라네(2025),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살림출판사, 194~195면 참조.

사냥터를 관리하는 추우가 사냥감을 잘 몰아 임금이 사냥을 하는 내용을 읊은 시라고 한다. 이 시를 통하여 사냥이 먹거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놀이로 사냥을 하며 즐겼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신하가 사냥을 모방한 사냥놀이를 한 것이다. 짐승을 이끈인 추우가 짐승을 몰아주면 왕이 사냥을 하며 놀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냥의 활쏘기는 이후에 향사(鄉射)라는 놀이로 만들어져 즐겼다. 『예기』 제40편에는 「투호(投壺)」와 그 내용이 나오고, 제46편에는 「사의(射義)」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투호」는 활쏘기에서 발전되어 나왔는데 화살을 항아리에 던져 넣어 즐기는 놀이이고, 「사의」는 활쏘기 요령과 예절의 의의를 설명한 내용으로 활쏘기 놀이 및 시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활쏘기 놀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향사(鄉射)」로까지 발전하여 전국 각지의 고을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며 즐기는 가운데 수양까지 하였다.

「주남」과 「소남」에는 나물을 채취하는 정경을 읊은 시가 적지 않다. 「주남」의 「권이(卷耳)」, 「부이(采芣苢)」와 「소남」의 「채번(采蘩)」, 「채번(采蘋)」이 대표적인 시이다. 이 중에서 「부이」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采采芣苢	캐자꾸나 캐자꾸나 질경이를
薄言采之	잠깐 그 질경이를 캐자꾸나
采采芣苢	캐어보세 캐어보세 질경이를
薄言有之	잠깐 그 질경이를 소유하였네

〈芣苢, 제1장〉

상기 시는 「부이」의 제1장이다. 이후 2, 3장은 제1장과 거의 비슷하다. 이 시에 대하여 주희는 『시집전』 주석에서 “교화가 시행되고 풍속이 아름다워 가정이 화평하니 부인네들이 아무 일이 없어 서로 더불어 이

질경이를 캐면서 그 일을 읊조려 써 서로 즐거워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¹¹⁾ 요한 하위징아는 시는 놀이에서 생겼다고 하였다. 그는 “자체적으로 문화생성 능력을 가진 시는 놀이로 태어나고 놀이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하였다.¹²⁾ 「부이」시는 요한 하위징아가 말한 사례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다. 시경시대 사람들은 나물 채취라는 노동에서 시를 지어 읊고 즐기며 나물을 채취하는 노동을 일종의 놀이로 만들어 즐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요는 이후에 계속 유행되어 실제로 나물을 채취 하거나 놀이로 발전하여 봄이 되면 이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4. 신방유희(新房遊戲)

『시경』에는 30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랑의 내용은 청춘남녀, 부부, 연인, 밀회 등 여러 가지이다. 대표적인 시로 「왕풍(王風)」의 「군자양양(君子陽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君子陽陽	서방님이 의기양양하여
左執簠	왼손에는 생황을 잡고
右招我由房	오른손으로 방에서 나를 부르니
其樂只且	매우 즐거워라
君子陶陶	임께서 흥에 겨워
左執翿	왼손에 새 깃으로 장식한 기를 잡고

11)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41면. “化行俗美, 家室和平, 婦人無事, 相與采此芣苢, 而賦其事以相樂也.”

12) 요한 하위징아(2023),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246면.

右招我由敖 오른손으로 춤추며 나를 부르니
 其樂只且 대단히 즐거워라
 〈君子陽陽, 제1, 2장〉

상기의 시는 한 쌍의 신혼부부가 사랑놀이를 하는 내용이다. 남편이 의기양양하고 흥에 겨워 악기와 깃을 장식한 부채를 들고 춤추며 부인을 불러 함께 놀자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 사랑놀이는 신혼의 신방놀이이다. 「당풍(唐風)」의 「주무(綢繆)」 시에서 이러한 정경을 엿볼 수 있다.

綢繆束薪 쫘쫘 땔나무를 묶을 적에
 三星在天 삼성별이 하늘에 떠 있구나
 今夕何夕 오늘 저녁이 무슨 저녁인고
 見此良人 여기에서 낭군님을 뵈었네
 子兮子兮 임이여 임이여
 如此良人何 이런 낭군님께 어떻게 할까
 〈綢繆, 제1장〉

이 시에 대하여 제 학자의 여러 의견이 있으나 주희는 “나라가 혼란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남녀가 그 혼인 시기를 놓쳐 버렸다가 뒤에 그 혼인의 예를 이룬 사람이 있었으니 시인이 그 부인이 남편에게 한 말을 서술하였다”라고 하였다.¹³⁾ 주희의 해석에 일부 의문점이 있지만 그 의의는 갓 혼인한 부부가 나눈 얘기라고 본 것이다. 이후에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신혼의 즐거움을 읊은 시로 설명하였다. 최근의 당막요(唐莫堯)는 『시경신주전역(詩經新注全譯)』에서 “신방놀이(鬧新房)를 읊은 것

13)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56면. “國亂民貧, 男女有失其時, 而後得遂其婚姻之禮者, 詩人叙其婦語夫之詞.”

은 아니지만 신방놀이의 전신이다.”라고 하였다.¹⁴⁾ 두 사람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이 시는 아마도 정식 혼인을 하지 못한 신부가 당시의 풍속에 따라 밥을 하고 군불 피우는 땀 나무를 묶고 신혼 첫날밤을 즐기는 놀이라고 여겨진다.

5. 연회유희(燕會遊戲)

시경시대에는 사람이 만나고 놀 때는 악기를 연주하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 만남은 크게 개인 두 사람이 만나 노는 경우와 여러 사람들이 만나 노는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시경시대에는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악기를 연주하고 술을 마셨다. 악기의 유래는 『예기』 「악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악기」에서 음은 인간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소리가 일정한 틀을 갖추면 악(樂)이 된다고 하였다. 음악은 악기에 의하여 연주가 된다. 악기는 개인이 연주하며 즐기기도 하였지만 제사의식과 축제에서도 연주되었다. 『시경』 305편은 노래로 불려졌는데 악기가 연주되어 노래 불려진 시도 적지 않다. 송시(頌詩)는 조상신에게 제사 지낼 때 불려진 노래인데 춤까지 곁들여졌다. 『시경』의 첫 번째 시 「관저(關雎)」 제3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과 연애에서 악기를 불고 연주하며 놀았던 정경을 엿볼 수 있다.

參差荇菜	올망졸망한 행채를
左右采之	좌우로 이리저리 캐도다
窈窕淑女	암전스럽게 착한 여인을

14) 唐莫堯(2004), 『詩經新注全譯』, 四川出版集團, 247면. “本篇雖不能說即後世所謂的鬧新房…恐亦鬧房的發展.”

琴瑟友之	거문고와 비파로 친애하도다
參差荇菜	울망줄망한 행채를
左右芼之	좌우로 이리저리 고르도다
窈窕淑女	암전스럽게 착한 여인을
鐘鼓樂之	종과 북으로 즐겁게 하도다

〈關雎, 제3장〉

이 시의 본의에 대한 해석은 크게 결혼의식시, 결혼축하시, 연애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시는 아마도 첫눈에 반하여 구애하며 겪은 어려움과 혼인의 즐거움을 읊은 시인 것 같다. 사모하고 구애하여 마침내 결혼한 신랑이 착하고 아름다운 부인을 위하여 금슬을 연주하고 종고를 쳐서 즐겁게 놀면서 신혼생활을 만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를 통하여 사람을 즐겁게 하며 놀 때는 악기를 연주하며 놀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아(小雅)」의 「녹명(鹿鳴)」 “나에게 아름다운 손님이 있어 비파를 타고 생황을 부노라.[我有嘉賓, 鼓瑟吹笙.]”라는 시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용풍(鄘風)」의 「정지방중(定之方中)」에는 “나무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와 옷나무를 심으니 베어서 거문고와 비파를 만들 것이도다.[椅桐梓漆, 爰伐琴瑟.]”라는 시구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연주할 악기를 직접 만들어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술은 우임금의 신하 의적(儀狄)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지고 두강(杜康)에 의하여 발전되었다고 한다. 은나라 사람들은 술을 즐겼고 술로 인하여 나라가 망했다고 한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를 남겼는데 술과 고기를 매우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은나라 이후에 건국된 주나라 역시 술을 마시며 놀았다. 「용풍(鄘風)」의 「백주」에 나오는 “내가 술이 없어 즐기고 놀 수 없는 것은 아니니라.[微我無酒, 以教以遊.]”라는 시구를 통하여 주나라 사람이 술을 마시고 즐

졌음을 알 수 있다. 술을 마시며 즐기고 논 정경은 아시(雅詩)에 자주 보인다. 아시의 106편은 대부분 군신이 조정에서 서로 만나 연회하고 간언하며 읊은 내용이다. 그 대표적인 시를 통하여 술을 마시며 놀았던 광경을 엿볼 수 있다.

魚麗于罍 물고기가 통발에 지나가는데
 鱸 자가사리와 모래무지보다
 君子有酒 군자가 술이 있는데
 旨且多 맛이 있고 많기도 하구나
 〈魚麗 제1장〉

이 시는 천자가 여러 신하를 조정에서 만나 연회를 베풀어 술을 마시며 논 내용을 읊은 것이다. 시의 내용은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걸렸듯이 많은 신하들이 천자에게 조회를 와서 노는 광경을 읊은 것이다. 시에서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군신의 관계를 비유하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공생공존하고 즐겁게 지냄을 표현한 것이다. 주희는 『시집전』에서 이 시의 용도에 대하여 “『의례(儀禮)』를 살펴보니, 향음주(鄉飲酒)와 연례(燕禮)에서 앞 음악이 이미 끝나면 모두 중간에 어리(魚麗)를 노래 부르고 유경(由庚)을 생황으로 불며 남유가어(南有嘉魚)를 노래 부르고 숭구(崇丘)를 생황으로 연주하며 남산유대(南山有臺)를 노래 부르고 유의(由儀)를 생황으로 연주하여 사이사이에 번갈아 한 번은 노래 부르고 한 번은 악기를 불었다.”라고 설명하였다.¹⁵⁾ 주희의 설명대로 「어리」는 궁중연회에서 불리지고 향음주에서도 노래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15)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389면. “按儀禮, 鄉飲酒及燕禮, 前樂既畢, 皆間歌魚麗, 笙由庚, 歌南有歌語, 笙崇丘, 歌南山有臺, 笙由儀, 間, 代也. 言一歌一吹也.”

6. 무술점복(巫述占卜)

주나라를 건국한 문왕과 무왕은 천명을 받고 천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은나라가 최고의 신으로 섬긴 상제(上帝)를 대신하여 최고의 신으로 천(天)을 숭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대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점복(占卜)을 쳐서 결정하고 무격(巫覡)을 통하여 귀신에게 물었는데 이는 무술(巫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복과 무격은 하나의 풍조가 되어 민간에서는 하나의 놀이형태로 유행되었고 무격의 활동은 무풍(巫風)을 형성하였다. 무풍의 놀이를 알 수 있는 시로는 「진풍(陳風)」의 「완구(宛丘)」와 「동문지분(東門之粉)」이다.

坎其擊缶	둥둥둥 그 질장구를 치며
宛丘之道	완구의 길에서 하도다
無冬無夏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이
值其鷺翮	그 해오라기 깃일산을 잡았도다

〈宛丘, 제3장〉

東門之粉	동문의 느릅나무와
宛丘之栩	완구의 상수리나무에
子仲之子	자중씨의 딸이
婆娑其下	그 아래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도다

〈東門之粉, 제1장〉

주희는 『시집전』에서 진(陳)나라의 유래와 풍습에 대하여 “주나라 무왕시대에 순임금의 후손 유우(有虞) 알보(閼父)가 주나라 도정(陶正)이 되었는데 무왕이 그가 기용(器用)을 편리하게 해 줌에 힘을 입고 그 신명(神明)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큰 딸 대희(大姬)로써 그 아들 만

(滿)에게 시집을 보내어 그를 진(陳)나라에 봉하여 완구(宛丘)의 곁에 도읍하도록 하여 황제(黃帝)와 요(堯)임금의 후예와 더불어 함께 삼각(三恪)이 되었으니 이 분이 호공(胡公)이다. 대희부인(大姬婦人)은 존귀하여 무격(巫覡)과 가무(歌舞)의 일을 좋아하였는데 그 백성들이 이에 교화되니 지금의 진주(陳州)가 바로 그 땅이다.”라고 하였다.¹⁶⁾ 주희의 설명처럼 완구는 대읍의 옆에 있는 땅으로 무풍이 유행하여 높은 언덕에서 무당들과 사람들이 어울려 놀았다. 『동문지분』 시에 대하여 주희는 “남녀가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그 일을 읊어 서로 즐거워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⁷⁾ 진나라의 남녀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 것은 모두 무풍의 영향으로 그러한 풍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점치는 놀이의 방법을 살펴보면, 「왕풍(王風)」의 「양지수(揚之水)」와 「정풍(鄭風)」의 「양지수」에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며, 한 다발의 땔나무도 흘러보내지 못하구나.〔揚之水，不流束薪.〕”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무 단을 물에 던져 자신의 앞날을 점쳐보는 놀이이다. 만약 나무 단이 물에 잘 흘러가면 앞날이 순탄하고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人占之	태몽가가 그것을 점쳐보니
維熊維羆	곰과 말곰은
男子之祥	사내 아들을 낳을 상서이고
維虺維蛇	살모사와 뱀은
女子之祥	딸자식을 낳을 상서이라네

16)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91면. “武王 賴其利器用 與其神明之後 以元女大姬로 妻其子滿 而封之于陳 都於宛丘之側 與黃帝帝堯之後 共爲三恪 是爲胡公 大姬婦人 尊貴 好樂巫覡歌舞之事 其民化之 今之陳州 卽其地也”

17)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93면. “此男女聚會歌舞 而賦其事以相樂也”

〈斯干, 제7장〉

升彼虛矣	저 옛 성터에 올라가서
以望楚矣	초구를 바라보았도다
望楚與堂	초구와 당읍을 바라보며
景山與京	산과 큰 언덕을 해 그림자로 방위를 바로잡으며
降觀于桑	내려와서 뽕나무를 관찰해보니
卜云其吉	거북점에서 그 길하다고 하더니만
終焉允臧	마침내 참으로 좋도다

〈定之方中, 제2장〉

시에 나오는 점은 시초점을 말하는데 시초점은 시초라는 신령한 기운이 있는 가지를 잘라서 길흉을 점치는 것이다. 복은 거북의 복뼈를 불에 구워 그 갈라진 무늬를 보고 화복을 판단하는 것이다. 두 방법은 자연물의 신령함을 빌어 길흉을 점쳐보는 것으로 모두 사람의 이성을 통하여 미래를 추론하는 주역의 방법과는 다른 원초적인 방법이다. 위에서 살펴본 나무 단을 묶어 물에 던져 길흉을 판단해 보는 방법은 더욱 서민적인 원초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경시대 사람들은 궁금한 미래의 길흉과 화복을 알아보기 위해 이처럼 점을 치며 놀았다고 할 수 있다.

7. 간화완물(看花玩物)

『시경』에는 꽃에 대하여 읊은 시구가 매우 많다. 그 꽃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꽃만을 대상으로 꽃을 관찰하고 즐긴 내용을 표현한 영물시는 있지 않다. 그러나 꽃에 관한 많은 시구를 볼 때 시경시대 사람들이 꽃을 구경하며 즐긴 정경은 충분히 유추하여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시구로 「도지요요(桃之夭夭)」의 “쨍

쌍한 복숭아 나무여, 그 꽃이 활짝 피었네.[桃之夭夭, 灼灼其花.]”로 들 수 있고, 대표적인 시로 「하피농의」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何彼穠矣	어쩌면 저렇게도 탐스러울까
唐棣之華	산앵두 나무의 꽃이도다
曷不肅雝	어찌 공경하고 온화하지 않겠는가
王姬之車	왕희 따님의 수레이도다

何彼穠矣	어쩌면 저렇게도 탐스러울까
華如桃李	꽃이 복숭아와 오얏꽃 같구나
平王之孫	평왕의 손녀요
齊侯之子	제나라 임금의 아들이도다
〈何彼穠矣, 제1, 2장〉	

주희는 이 시에 대하여 “왕희(王姬)가 제후(諸侯)에게 아래로 시집갈 적에 수레와 의복의 훌륭함이 이와 같은데 감히 귀함을 믿고서 그 서방님의 집안에서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그 수레를 본 사람이 그가 능히 공경하고 온화하여 써 부인의 도리를 집행할 것을 알고서 이에 시를 지어서 그를 찬미하여 이르기를 어쩌면 저렇게도 탐스럽게 성할까. 바로 산 앵두나무의 꽃이구나. 이 공주가 어찌 엄숙하게 공경하고 웅웅(雝雝)하게 화락하지 않겠는가. 바로 왕희의 수레이구나 하였다. 이것은 바로 무왕(武王) 이후의 시인데 가히 그 어느 왕 세대인지는 적실히 알 수가 없지마는 그러나 문왕과 태희(太姒)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쇠퇴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또한 가히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였다.¹⁸⁾ 주

18)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69면. “王姬下嫁於諸侯, 車服之盛如此, 而不敢挾貴以驕其夫家, 故見其車者, 知其能敬且和以執婦道. 於是, 作詩以美之曰: ‘何彼戎戎而盛乎? 乃唐棣之華也. 此何不肅肅而敬雝雝 而和乎? 乃王姬之車也.’ 此乃武王以後之詩, 不可的知其何王之世, 然文王太姒 之教, 久而不衰, 亦可見矣.”

희의 설명이 다소 고답적이기 하지만 꽃을 가지고 시집가는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과 정경을 비유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경시대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비유할 정도의 재능이 있었다면 평소에도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심미능력이 있었을 짐작할 수 있다.

완물(玩物)에서 완(玩)의 의미는 놀이의 개념 항목에서 살펴본 것처럼 둥근 구슬을 가지고 논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뜻이 연상되어 어떤 사물과 동물을 특별히 애호할 때 완물이라고 한다. 주나라 사람들은 옥을 아끼고 좋아하였다. 그들은 옥을 몸에 지니고 달고 다니기도 하였다. 「위풍(衛風)」의 「기옥(淇奥)」에 나오는 ‘절차탁마’라는 성어 또한 옥과 연관이 있다. 시경시대에는 옥뿐만 아니라 동물을 좋아하였다. 맹자에는 맹자가 양혜왕과 나눈 대화 중에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는 양혜왕의 고백이 나오고 맹자는 동물을 애완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다만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로 「제풍(齊風)」의 「노령(盧令)」이 있다.

盧令令 사냥개가 딸랑딸랑하는데
其人美且仁 그 사람이 아름답고 또 인자하구나

盧重環 사냥개가 이중 목걸이를 하였는데
其人美且鬣 그 사람이 아름답고 또 수염과 살쩍이 아름답네

盧重鋹 사냥개가 이중 목걸이를 하였는데
其人美且偲 그 사람이 아름답고 또 수염이 많구나
(盧令, 3장)

「모시서(毛詩序)」에서는 이 시에 대하여 “「노령(盧令)」은 사냥에 빠짐을 풍자한 시(詩)이다. 양공(襄公)이 전렵(田獵)하여 그물치고 주살

질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의 일을 닦지 않으니, 백성(百姓)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다. 그러므로 옛날을 말하여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⁹⁾ 그러나 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공이 사냥터에 데리고 나온 사냥개는 단순한 사냥개가 아니고 그의 애완견임을 알 수 있다. 노(盧)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냥개로 몸체가 크고 검으며 용맹하였다. 양공은 이러한 사냥개에 목걸이를 하였는데 그 목걸이는 큰 고리와 작은 고리의 이중 목걸이였고 방울이 달려있고 수염이 멋지게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하여 사냥을 즐긴 제나라 양공이 사냥개를 무척 사랑하여 애완동물로 키우며 놀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제사유희(祭祀遊戲)

주나라에서 놀이는 제사의식에서 많이 행해졌다. 천신과 지신 및 조상신에 제사를 지내고 놀며 즐겼다. 송시(頌詩) 40편은 천자가 자신들의 선조에게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로 춤까지 병행하였다.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성공을 조상에게 알리며 춤추고 노래를 불러서 조상신을 기쁘고 하고 신하들과 함께 제사를 마치고 즐기며 놀았다. 제사와 같은 의례와 놀이의 관계에 대하여 요한 하위징아는 “원시적인 의례는 신성한 놀이였고, 공동체의 안녕, 우주적 통찰, 사회적 발전에 필수적이다.”라고 하였다.²⁰⁾ 『시경』의 송시는 모두 제사의례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이다. 이런 제사는 의례인 동시에 일종의 놀이로서 놀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成百曉 譯註(2006),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28면. “毛序, 盧令, 刺荒也. 襄公, 好田獵畢, 而不修民事, 百姓苦之. 故陳古以風焉.”

20) 요한 하위징아(2023),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75면.

猗與那與	아, 많도다
置我鞀鼓	우리 작은 북과 큰 북을 벌여 놓고서
奏鼓簡簡	북을 치기를 둥둥둥 하니
衍我烈祖	우리 탕 임금을 즐겁게 해 주리로다

庸鼓有鞀	쇠북소리와 북소리가 웅장하며
萬舞有奕	온갖 춤(文舞와 武舞)이 질서 정연하니
我有嘉客	우리 아름다운 손님이
亦不夷憚	또한 기뻐하지 않겠는가

〈那, 제1, 3장〉

주희는 이 시에 대하여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상(商)나라 사람들은 음악을 숭상하여 취미(臭味)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그 소리를 드날려서 음악을 세 번 연주하여 마친 뒤에 나가서 희생을 맞이한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구설(舊說)에 이것을 성탕(成湯)을 제사하는 음악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시를 통하여 제사의례에는 많은 악기가 동원되어 연주되고, 춤이 병행되어 노래와 춤으로 조상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공적을 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대한 제사가 끝나면 제사에 참가한 사람은 물론 구경을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제수를 먹고 마시며 축제 아닌 축제 판을 펼쳐 놓았음을 알 수 있다.

三. 맺는 말

『시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그러나 서문에서 밝혔듯이 『시경』의 내용을 놀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의의를 밝힌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은 일과 놀이로 대별할 수 있다. 일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놀이는 일상의 일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

한 것이다. 중국 고대에서는 처음에는 일과 놀이가 혼재하였다. 일이 놀이였고 놀이가 일이었다. 사냥과 물고기를 잡으며 일하고 놀았다. 신과 선조에게 제사를 지내며 놀고 즐겼다. 나물을 채취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힘듦을 잊고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다가 일과 놀이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지고 일과 놀이가 분리되어 순수한 놀이가 만들어져서 특별한 날을 지정하여 즐기는 축제와 놀이가 만들어졌다.

『시경』의 시는 서주 말에서 동주 초기에 유행한 노래이다. 그 시기는 청동기에서 철기시대로 진입하고 수렵과 이동생활에서 정착과 농경시기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이때에는 이미 생존을 위한 일과 더불어 그 일을 잠시 멈춰 긴장을 풀고 즐긴다는 개념이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일장일이(一張一弛)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일미는 오늘날 말하는 놀이와 관련이 있다. 놀이는 자발적으로 일상의 일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 아래 『시경』에 수록된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한 것이 본 논문의 내용이다. 그 종류는 1. 절일유희(節日遊戲), 2. 엽채유희(獵采遊戲), 3. 신방유희(新房遊戲), 4. 연회유희(燕會遊戲), 5. 무술점복(巫述占卜), 6. 간화완물(看花玩物), 7. 제사유희(祭祀遊戲) 등이다. 이러한 놀이의 탄생과 형성은 크게 우주와 자연의 신화적 해석-무술기도(巫術祈禱)-종교화-의식-축제-놀이, 무술(巫術)-모방(模倣)-유희와 춤-가요, 생존과 생산 활동-모방-유희-시가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내용은 다시 크게 놀이 그 자체를 즐긴 순수한 놀이와 일과 행사를 겸한 놀이 형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순수한 놀이는 절일유희, 신방유희, 연회유희, 간화완물 등이고 일과 행사를 겸한 놀이 형태는 「풍」의 엽채유희와 「아」의 연회유희와 「송」의 제사유희 및 무술점복 등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실용적인 일에서 그것을 모방한 놀이가 탄생한 것

이다. 엽채유희에서 짐승사냥과 나물채취는 생존과 생산을 위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일이었는데 짐승의 사냥을 모방하여 짐승몰이 사냥놀이와 활쏘기 시합이 만들어지고 나물을 채취하며 부른 노래는 처음에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 불린 노래였지만 그 노래가 탄생한 이유는 그 노래를 부르며 놀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술점복은 우주와 자연의 신비함과 재앙을 해석하고 피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는데 이후에는 이를 일상생활에서 놀이 삼아 즐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생존생산-모방-놀이-가요와 신화적 해석-무술-놀이-가요의 모식(模式)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식이 나타난 이유는 시경시대가 무술과 일과 놀이가 혼재되어 무술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이 놀이이고 놀이가 일인 혼재의 시대에서 점차 무술과 합리성 및 일과 놀이가 분리되는 과도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놀이의 중요성과 효용성이 인식되어 놀이의 형태가 규범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郭全芝 著, 《清代詩經新疏研究》, 安徽大學出版社, 2010.
 金赫濟 編纂, 《詩傳》, 明文堂, 2000.
 唐莫堯, 『詩經新注全譯』, 四川出版集團, 2004. 247쪽.
 戴維 著, 《詩經研究史》, 湖南教育出版社, 2001.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2004.
 뤼트허르 브레호만, 『휴먼카인드』, 인플루엔셜, 2021.
 마르셀 그라네, 『중국의 고대 축제와 가요』, 살림출판사, 2005.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006.
 수전 매그새먼, 아이비 로스 지음, 허형은 옮김,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 월북, 2025.

- 요한 하위징아,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2015.
- 于新 著, 《詩經研究概論》, 中國社會出版社, 2010.
- 朱孟庭 著, 《詩經的多元闡釋》, 文津出版社, 2012.
- 朱熹 著, 朱傑人 外 2名 主編,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0.
- 池載熙 해역, 『예기』 상・중・하, 자유문고, 2000.
- 詹石窗, 《中國哲學史》, 中國書店, 2002.
- 최효미, 「시경 〈국풍〉에 투영된 사회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2.
- 何海燕 著, 《清代詩經學研究》, 人民出版社, 2011.
- 叶舒憲, 『詩經的文化闡釋』, 湖北人民出版社, 1996.
- 洪湛俊, 《詩經學史》 上・下冊, 中華書局, 2002.

Play Culture Examined through 『sijing』

Park, Suncheol* & Choi, Yoongeum**

In the 『shijing』, there are many play cultures that Roger Caillois and Johan Huizinga valued and emphasized. The concept of play was emphasized by the two, but even in ancient China, there was already an idea of the importance of play. This concept can be expressed in one word, “tension and relaxation” Among these, Il-mi is related to the play that today. Human play is relaxing and seeking pleasure.

This paper analyzes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sijing』 from the perspective of play. The content of 「風」 in 『sijing』 is a folk song. 「雅」 is a banquet held by the emperor and his servants in the royal court. and 「頌」 was a ritual in which descendants sang and danced for their ancestors. What 風, 雅, 頌 have in common is that it is a song, and there are not a few contents about play in the song. Types of play are 1. 節日祝祭(Festival Greeting Ceremony), 2. 獵采(Hunting and gathering) and 遊戲(game), 3. Love Play(愛情遊戲), 4. 食飲酒樂(Joy with food and wine), 5. 占卜遊戲(Divination game), 6. 玩物(Toys), 7. 君臣會餐(King and minister party), and 8. 祭神祀祖(ritual God's Day).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lays, 「風」 was a simple, voluntary play and enjoyment of festivals. 「雅」 was joy and harmony through the banquet of the royal court and the military god. 「頌」 was a praise and a seeking blessings for the ancestors through ritual ceremonies.

*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unshan@hanmail.net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gurasung1234@hanmail.net

Key Words

shijing, amusement, fun, tension and relaxation, Festival Greeting Ceremony, Love Play, Joy with food and wine, Divination game, Toys

논문접수일: 2025.6.1., 심사완료일: 2025.6.23., 게재확정일: 2025.6.26.
--